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과 시교육 평가의 개선 방안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남민우*

<차례>

- I. 서론
- II. 초등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결과
- III. 초등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결과의 검토
- IV. 결론

I. 서론

이 글에서는 국가수준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¹⁾ 중 초등학교 6학년 평가에 활용된 시교육 평가 문항과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을 파악하고 초등 시교육 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는 6학년을 평가 대상 학년으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정착 정도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998년 이후 매년 시행되어 온 대단위 조사 연구이다 (김명숙 외, 2001). 특히 2003년 개발된 척도 점수 체계(scale score system)와 연도 간 검사 동등화(test equating)를 통해 연도 간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박정 외, 2006). 단, 2008년부터는 표집 평가에서 전수 평가로 전환하였고, 2009년 결과 보고서부터 전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설정하고 있는데, 평가 범위가 국어과 교육과정상 4학년에서 6학년(1학기) 까지이기 때문에 초등 시교육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전체 시험 시간은 2008년까지 60분(40문항)이었고, 2009년에는 40분(30문항) 이었으며 이 중 시교육 평가 관련 문항은 대체로 3개 문항(2007년과 2008년에는 5개 문항)이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된 2004년~2009년간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교육 평가 문항과 평가 결과들이다. 2004년은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추이 분석에서 원년에 해당한다. 2010년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초등 시교육은 동시(童詩)를 제재로 한다.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을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동시 이해와 표현 능력’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童詩) 도 엄연히 시의 일종이다. 예상 독자 차원에서 성인시와 구분될 뿐, 풍부한 감각적 심상과 깊은 정서적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며, 개인의 모든 지적 정서적 능력의 총체적인 반응을 요구한다.²⁾ 성인시와 동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시적 능력의 질적 차이는 상대적일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시, 동시 이해와 표현 능력’ 등의 유표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적 능력이란 용어로 포함하여 사용한다.

초등 시교육은 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시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초석에 해당한다. 시적 능력의 발달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시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 시교육의 결과를 파악하여 중등 시교육을 실천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그러해야 7차 교육과정 이후 도입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의 취지에도 부합 할 수 있다.

교육 평가의 기본적 기능³⁾에 비추어 볼 때, 초등 시교육 평가는 시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 방법,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학습적 실천이 지니는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

2) 신현재·권혁준·곽춘옥(2007), 『아동문학과 교육』, 박이정, p.119.

3) 황정규 외(1991),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제2부 제1장.

라서 평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모두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한 실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평가, 신뢰할 수 없는 평가 도구를 투입하여 수집한 평가 결과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가 결과와 아울러 평가 도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04년~2009년간 활용된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 시교육 평가가 어떤 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초등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결과

II장에서는 2004년~2009년간 실시된 초등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결과를 살펴본다.

1. 평가틀

평가틀(assessment framework)이란 평가의 성격과 목적, 평가 내용의 선정과 조직, 평가 도구의 유형 선정과 개발 방법, 평가 결과의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한 평가 계획서에 해당한다.⁴⁾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초등 시교육 평가는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 내용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틀을 공유한다.⁵⁾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 대영역–중영역–성취기

4) Bachman, L.F. & Palmer, A.S.(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U.P., pp.85-93.

5) 이재기 외(2005), 200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준-평가기준]의 틀을 지니고 있다. 평가 대영역은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며, 중영역은 대영역을 좀 더 상세화한 것이다.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하길 기대하며 설정한 지식과 기능을 진술한 준거이며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한 준거이다. 시교육 평가는 문학 영역 평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문학 영역 평가들은 10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시교육 평가에 활용된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틀

성취기준	연도별 문항 번호 및 문항 수						
	04	05	06	07	08	09	계
32. (작품의 미적 구조) 시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11	24	24	23	21	13	6개
35. (작품의 미적 구조)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12	22	22	22	20	12	6개
36.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의 표현 효과를 이해한다.	13	23	23	24	22	14	6개
37.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서답형]	-	-	-	서 10	서 10	-	2개
39.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양상)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	-	-	-	30	30	-	2개

<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 시교육 평가는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중 5개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성취기준 32, 35, 36은 2004년~2009년간 매년 출제되었고, 37, 39는 2007년과 2008년에만 출제되었다. 성취기준 32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4학년 문학 영역의 내용 요소인 ‘4-문-2. 작품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한다.’에 근거하고 있고, 성취기준 35는 ‘6-문-3.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

현을 음미한다.'에, 성취기준 36은 '5-문-3.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는다.'에, 성취기준 37은 '5-문-6.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에, 성취기준 39는 '4-문-5.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사고 방식을 이해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성취기준 39가 이야기 장르와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시교육 평가의 근거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다소 의외이나, 다른 성취기준들은 대체로 시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취기준 37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다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2. 평가 결과

평가틀에 따라 개발된 평가 문항([부록 1] 참조)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반응 결과를 제시하면 <표 II-2>와 같다.⁶⁾

<표 II-2>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 결과

구분			연도별 정답률(%)				
성취기준	집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⁷⁾
32	전체	81.0	75.4	39.7	46.8	72.0	87.0
	우수학력	95.9	96.2	61.9	60.1	89.8	97.7
	보통학력	84.8	84.4	41.3	49.2	74.7	90.8
	기초학력	67.9	53.7	22.0	32.5	49.0	66.0
	기초미달	37.3	16.0	11.9	15.4	13.5	22.0
35	전체	89.1	39.8	62.3	55.4	85.1	84.7
	우수학력	98.3	48.0	67.4	74.8	96.1	93.8
	보통학력	93.3	42.7	66.3	57.1	90.6	85.5
	기초학력	79.1	32.8	54.7	36.0	66.0	70.7
	기초미달	47.2	13.6	27.9	20.2	23.7	36.8

6)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2004년~2009년간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보고서 목록은 참고문헌.

7) 2008년까지는 표집 집단의 결과이나, 2009년 결과는 전수 집단의 결과임. 국가수준 학

구분			연도별 정답률(%)				
성취기준	집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⁸⁾
36	전체	37.6	51.9	62.7	71.3	65.5	82.7
	우수학력	67.1	84.6	85.6	91.7	83.7	96.0
	보통학력	34.9	55.8	67.6	76.4	67.2	84.3
	기초학력	22.8	30.7	40.2	46.7	42.2	59.5
	기초미달	16.8	15.2	17.8	20.0	18.5	25.6
37 (서답형)	전체	-	-	-	65.1	59.7	-
	우수학력	-	-	-	88.6	87.5	-
	보통학력	-	-	-	69.7	59.4	-
	기초학력	-	-	-	38.3	28.3	-
	기초미달	-	-	-	14.1	8.3	-
39	전체	-	-	-	78.4	51.8	-
	우수학력	-	-	-	98.9	78.7	-
	보통학력	-	-	-	86.2	48.4	-
	기초학력	-	-	-	49.6	26.1	-
	기초미달	-	-	-	21.6	14.9	-

<표 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취기준 32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정답률은 39.7%~87.0%에 분포하였고, 성취기준 35에 대해서는 39.8%~89.1%, 성취기준 36에 대해서는 37.6%~82.7%, 성취기준 37에 대해서는 59.7%~65.1%, 성취기준 39에 대해서는 51.8%~78.4%에 분포하였다.⁹⁾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박정 외, 2006 ; 김성숙 외, 2010)에서 ‘우수학력’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 내용 중 대부분(80% 이상)을 성취한 수

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체제 및 표집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성숙 외(2010) 참고

- 8) 2008년까지는 표집 집단의 결과이나, 2009년 결과는 전수 집단의 결과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체제 및 표집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성숙 외(2010) 참고
- 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동등 집단 공통문항(전체 검사 문항 중 약 30%) 설계 방법’에 따른 연도 간 검사 동등화(test equating)를 통해 연도간 척도점수, 성취수준 비율, 문항 정답률 등을 비교 가능하게 보고하고 있다. 즉 매년 응시하는 학생들이 다르지만, 직전 연도에도 활용하였던(보안 유지된) 일정 수의 공통 문항을 당해 연도에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두 연도 간 반응을 기초로 전체 검사의 연도 간 반응을 비교 가능하게 측정학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박정 외(2006), 앞의 보고서 참고

준을 의미하며, ‘보통학력’은 상당 부분(50% 이상)을 성취한 수준, ‘기초학력’은 기본적인 부분만(20% 이상)을 성취한 수준을 의미한다. 우수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성취기준32에 대해 60.2%~97.7%에 분포하였고, 성취기준 35에 대해 48.0%~98.3%, 성취기준 36에 대해 67.1%~96.0%, 성취기준 37에 대해 87.5%~88.6%, 성취기준 39에 대해 78.7%~98.9%에 분포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정답률은 성취기준 32에 대해 11.9%~37.3%에 분포하였고, 성취기준 5에 대해 13.6%~47.2%, 성취기준 36에 대해 15.2%~47.2%, 성취기준 37에 대해 8.3%~14.1%, 성취기준 39에 대해 14.9%~21.6%에 분포하였다.

III. 초등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결과의 검토

Ⅲ장에서는 앞서 살핀 초등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초등 시교육 평가와 교수·학습의 개선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1. 평가틀 검토 : 수용과 창작 범주의 균형 추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격과 목표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정착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초등 시교육 평가틀에 대한 검토는 국어과 교육과정상 초등 시교육 내용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초등 시교육 평가틀이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과 부합하는지, 평가 요소로 선정된 성취기준들이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등을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⁰⁾

10) 성태제(2005), 『현대교육평가』, 학지사, pp.319-321.

내용 타당도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 시교육 평가틀은 포괄성의 문제, 중복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포괄성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신현재·진선희(2006)의 논의에 의하면, 7차 교육과정에서 1학년부터 6학년 까지의 초등 시교육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4개, 4학년 4개, 5학년 5개, 6학년 6개 등 총 23개이며,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15개이다.¹¹⁾ 이는 읽기 영역과 문학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추출한 것인데, 여기에 쓰기 영역까지 포괄하여 재론하면 초등 시교육 내용 요소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4학년 쓰기 영역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생성하여 글을 쓴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초등 시교육 내용 요소의 총 개수를 어느 정도로 잡든,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에서 3개의 성취기준만을 평가 요소로 설정했다는 점은 전체 대비 과소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총 문항 수가 40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적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내용 요소 대비 평가 요소의 수가 적다는 데에만 있지는 않다. 앞서 추출된 초등 시교육 내용 요소들을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면 지식 범주, 활동(수용과 창작) 범주, 태도 범주로 하위 구분된다. 그런데 <표 II-1>의 성취기준들은 이 중에서 지식 범주, 수용 관련 활동 범주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성취기준 35는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지식의 적용 능력과 관련되므로 지식 범주에 속한다. 성취기준 32와 36은 주제 파악, 시적 표현의 효과 파악 능력과 관련되므로 활동 범주 중 수용 범주에 해당한다. 2007년과 2008년에만 출제된 성취기준 37 역시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쓰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 수용의 연장선에 있지 시의 창작 능력을 직접적으

11) 신현재·진선희(2006), 『학습자 중심 시교육론』, 박이정, pp.146-9. 국가수준 국어과(문학 영역) 교육과정에서는 시교육 내용 요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교육 내용 요소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출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학 영역 교육과정을 구성,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은 장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성취기준 39는 서사 교육과 좀 더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시교육의 항상적 내용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2004년~2009년간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초등 시교육 평가틀은 지식 범주, 시에 대한 수용 활동 범주 중심의 평가란 점에서 포괄성이 약하다. 태도 범주가 배제된 것은 표준화 검사의 특성상 불가한 측면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창작 범주가 배제된 것은 재론이 필요하다. 유영희(2003)에서 논의되었듯이, 문학 교육이 표현과 이해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문학 교육에 불과¹²⁾ 하며, 이러한 주장은 초등 시교육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시적 표현이나 시 작품 한 편을 창작해 보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 창작 능력이 언제나 항상 시 수용 능력보다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초등 시교육의 목표를 전문적인 시적 능력의 습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시 창작 능력을 평가 요소로 설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둘째, 중복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성취기준 35와 36은 시의 표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세밀하게 생각하면 성취기준 35는 감각적 표현의 종류(이미지의 종류에 대한 지식과 이의 적용 능력)를 구분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성취기준 36은 독자의 주관에 따라 인상적으로 판단한 각 표현들의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성취기준이므로 서로 구별되기도 한다. 그러나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에서 활용된 문항 수가 대체로 3개에 불과하였는데, 시 창작 능력과 관련된 요소는 배제된 채, 굳이 표현 범주에 관련된 성취기준을 2개나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요컨대,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틀은 시교육 내용 체계의 하위 범주 중 지식 범주, 수용 중심의 활동 범주 등에 대해서만 평가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수용 범주 중 표현 관련 범주를 중복적으로 설정

(12) 유영희(2003),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제1부.

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평가 요소가 대체로 3개에 불과해 학생들의 시적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교육 평가틀에 창작 활동 범주의 평가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중복성이 있는 표현 관련 평가 요소를 통합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충분한 문항 수 확보를 위한 방안도 국어과 평가틀 차원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평가 문항 검토 : 시 관련 용어의 체계적 교수·학습

평가 문항의 양호도 검토는 양적 준거에 의한 방법과 질적 판단에 의한 방법으로 대별된다.¹³⁾ 양적 준거로는 고전 검사 이론(classical test theory)에 의한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 (선다형의 경우) 답지 반응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기 외(2005)에 의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고전 검사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질적 판단에 의한 방법은 교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거해 문항의 내용과 구조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특히 국어과의 경우 문항과 아울러 제시문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방법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참조의 관점에서 활용할 때 효과적이다. 이하에서는 초등 시교육 문항의 양호도를 검토함으로써 초등 시교육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III-1〉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 문항의 변별도

구분	연도별 문항 변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성취기준						
32	0.38	0.50	0.35	0.27	0.45	0.48
35	0.37	0.18	0.18	0.35	0.46	0.35
36	0.32	0.43	0.40	0.46	0.41	0.46
37	-	-	-	0.65	0.64	-
39	-	-	-	0.52	0.42	-

13) 성태제(2005), 앞의 책, pp.223-237.

<표 III-1>은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에 활용된 문항의 변별도를 나타낸다.¹⁴⁾ 총 22개의 문항 중 3개를 제외하고는 0.30 이상의 변별도를 나타내었다. 0.40 이상의 높은 변별도를 보인 문항도 총 22개 중 13개에 이르러 초등 시교육 평가 문항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표 III-1>에서 음영 표시된 성취기준 32의 2007년 문항(23번, 전체 정답률 46.8%)과 성취기준 35의 2005년 문항(22번, 전체 정답률 39.8%), 2006년 문항(22번, 전체 정답률 62.3%)은 다소 낮은 변별도를 보였다. 특히 성취기준 35 관련 문항은 극히 낮은 변별도를 보였다. 이하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분석한다.

성취기준 35의 2005년 문항과 답지 반응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취기준 35의 2006년 문항과 답지 반응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눈동자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이다.	(전략) 겨울은 봄을 위하여 들판을 잠시 비워 둔다.								
<u>그 목소리는</u> <u>도란도란</u> <u>속삭이며 흐르는</u> <u>시냇물이다.</u>	하얀 산 어디선가 나무들은 푸른 물감을 만들고								
(하략-[부록 1] 참고) -김관식, 〈어린이〉	(하략-[부록 1] 참고) -김숙희, 〈겨울은〉								
22. 밑줄 친 부분에서 쓰인 감각적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① 고추같이 빠알간 노을 ② 보송보송한 야기의 두 볼 ③ 가슴에 스미는 들국화 향기 ④ 바람결에 묻어오는 까치 소리 ⑤ 마알간 유리에 비치는 푸른 하늘	22. 다음 표현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색동옷 갈아입은 기을 들판 ② 갈래갈래 흩어지는 풀꽃 향기 ③ 바람이 사공 되어 노를 젓는다. ④ 귀뚤귀뚤 노래하는 금 속의 음악가 ⑤ 해님은 소리 내어 아는 체를 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9	20.0	15.8	39.8	11.8	62.3	8.3	14.2	7.1	5.9

14)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2004년~2009년간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보고서 목록은 참고문헌.

두 문항의 변별도가 0.18로 낮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문항의 과제(task)를 표현하고 있는 문두를 살펴보자. 문두에 의하면 두 문항 모두 작품 속 특정 표현을 감각적 표현의 사례로 제시한 후, 그것과 유사한 표현을 답지에서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답을 포함한 답지들을 분석해 보면 문두가 요구한 과제는 ‘감각적 표현이 독자에게 환기하는 심상’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2006년 문항에서는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2005년 문항의 문두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2006년 문항의 요구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2005년 정답률보다 2006년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오답 반응을 분석해 보면 일부 학생들은 ‘감각적 표현’이란 용어를 ‘수사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혼동하여 해석한 경향이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반응률이 높았던 오답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5년 ②번, 2006년 ③번 답지에는 모두 인물이 등장한다. 2005년 시 작품은 ‘어린이’를 소재로 하여, 대상의 특징을 자연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초등학생들의 수준에서 볼 때, 보조관념인 자연이 어린이로 의인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물론 2005년 작품의 밑줄 부분은 의인법이 아닌, 은유법이 쓰인 표현이고 답지 ②번 역시 의인법이 쓰인 표현이 아니라 단지 인물이 등장할 뿐이다. 2006년 시 작품은 전체적으로 자연(겨울)을 의인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와 같기에, 적지 않은 학생들은 의인법이 쓰인 것을 찾으려 했다고 보인다.

이처럼 2005년 문항과 2006년 문항을 비교해 볼 때, 문두 작성에서 용어 사용을 엄밀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킨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감각적 표현을 수사법으로 오독하는 일부 학생들의 경향이 초등 시 교육에서 ‘시 관련 용어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례로 제시된 표현들(‘나무들은 푸른 물감을 만들고’ 등)에는 특징적인 수사법 특히 초등학생 수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의식되는 의인법이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이 표현들을 감각적 표현으로 인식하면서도 의인법이 쓰인 표현이라는 점에 더 주목할 수 있다. 표현에서 사용된 수사법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과 표

현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학습했다면 학생들의 오인(誤認)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 관련 용어의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식의 암기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용어의 학습을 배제한 채 전개되는 시 교수·학습은 오인의 가능성은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시 학습 용어의 정의를 좀 더 분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에는 관념적 표현보다 감각적 표현이 우세하다는 상식이 통용되나, 감각적 표현이라는 용어는 엄밀한 용어라 하기 어렵다.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도 정작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⁵⁾ 더욱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감각적 표현이 분류 가능한지,¹⁶⁾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은 무엇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이것은 교수·학습할 내용이나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라 보기 어렵다. 감각적 표현은 직유나 은유적 표현, 음성 상징에 의한 표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한 수사법에 의해 독자에게 구체적인 실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정확한 용어 규정이나 분류 기준의 제시 없이,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학습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비체계적이다.

3. 평가 결과 검토 :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

1절에서 검토한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들은 초등학생들

15) 관련 성취기준인 ‘6-문-3.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음미한다.’에 대한 제7차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은 교육인적자원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국어, 도덕, 사회－, p.138.

16) 수사법(비유 등)이 표현의 언어적 구성 원리라면 심상은 다양한 수사법에 의해 독자의 내면에 재현되는 결과인바, 심상(이미지)과 수사법(비유 등)은 매우 밀접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찾으라’는 지시문을 초등 수준에서 막연하게 사용해서는 ‘수사법이 유사한 표현을 찾으라’는 지시문과 혼동될 수 있다. 심상과 비유에 대해서는 김준오(1994), 『시론』, 삼지원, pp.101-115.

의 시적 능력 중 지식 및 시 수용 능력 중심으로 평가 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표 II-2>에 제시된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표 II-2>에 제시된 바처럼, 성취기준32(주제 파악)에 대해서 전체 학생들의 경우 6회의 검사 중 4회 이상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고, 2회(2006년, 2007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성취기준 35(이미지 구분)에 대해서는 6회의 검사 중 3회 이상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2회(2005년, 2007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성취기준 35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도 1회를 제외하고 5회 모두 20% 이상의 정답률을 보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가장 높은 성취를 보여 주는 성취기준에 해당하였다. 성취기준 36(인상적 표현의 효과 파악)에 대해서는 6회의 검사 중 2회만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을 뿐, 4회(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6년 연속 출제되었던 세 가지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은 세 가지 성취기준 중 시를 읽고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거나 특정한 감각적 표현의 종류를 구분하는 활동보다는 시 작품 속에서 인상적 표현을 찾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외에 성취기준3 7(시에 대한 생각과 느낌 표현)과 성취기준 39(작품 속 인물의 특성 파악)는 2회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성취기준들과 달리 그 경향성을 좀 더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취기준 37은 서답형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선다형에 비해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수학력 학생들은 2회 모두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5개의 성취기준 중 이 성취기준에 대해 가장 낮은 정답률(14.1%, 8.3%)을 보였다. 성취기준39에 대해서는 1회는 약 8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였으나 1회는 50% 초반의 정답률을 보였다. 우수학력 학생들은 1회는 거의 100%의 정답률을 1회는 80% 가까운 정답률을 보였다. 기초학력 학

생들은 2회 모두 50%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초등 학생들은 서답형 문항일 때 정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기초학력 미 달 학생들은 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석된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주제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인상적 표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해 본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정답률이 최저, 최고였던 2006년과 2009년 시 작품을 살펴보자.

성취기준 32의 2006년 문항과 답지 반응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취기준 32의 2009년 문항과 답지 반응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겨울은 봄을 위하여 산을 잠시 흰 눈으로 덮는다. 겨울은 봄을 위하여 들판을 잠시 비워 둔다. 하얀 산 어디선가 <u>나무들은 푸른 물김을 만들고</u> 빈 들판 어디선가 나비들은 고운 옷감을 만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위하여 하얀 도화지를 마련하듯	깊은 산속 나무들은 아름다운 산새 소리 오래오래 쌓아 두고 싶어 날마다 잎을 키운다. 깊은 산속 나무들은 밤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자꾸만 하늘로 뻗어간다. (가) 조잘대는 산새 소리 발끝까지 간지러운 산골물 소리 그 소리가 듣고 싶어 산토끼, 다람쥐도 쫑긋쫑긋 귀가울이고 찾아오면 겨울은 봄을 위하여 산을 잠시 흰 눈으로 덮는다.
	지나던 달님도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야 허겁지겁 산을 넘는다.
	—강영희, 〈깊은 산속〉

성취기준 32의 2006년 문항과 답지 반응					성취기준 32의 2009년 문항과 답지 반응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겨울은 봄을 위하여 들판을 잠시 비워 둔다. –김숙희, 〈겨울은〉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24.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봄을 기다리는 즐거움 ② 하얀 도화지에 그리는 겨울 풍경 ③ 겨울 들판을 보고 느끼는 허전함 ④ 봄을 배려하는 겨울의 아름다운 마음 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들판의 아름다운 모습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맘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일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11.2	8.5	5.8	39.7	31.8	87.0	5.2	3.2	3.2	1.1

[부록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2009년간 초등 시교육 평가에 선정된 시 작품 총 수는 8편이다. 이들 8편의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작품명	제재	화자의 특징	형상화의 특징	형태
04년	새들을 위해	자연(가을)	전형적인 서정적 자아	가을의 다양한 현상을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새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바라보며 물활론적 시각에서 서술	7연 19행
05년	어린이	어린이	전형적인 서정적 자아	어린이의 아름다움을 자연에 비유하여 예찬	4연 20행
06년	겨울은	자연(겨울)	전형적인 서정적 자아	겨울의 다양한 현상을 봄을 위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물활론적 시각에서 서술	7연 20행
07년-1	지도 속에서	지도	서술시적 자아	지도를 보며 고향 생각을 하는 어린이의 마음과 행동을 서술	7연 18행
07년-2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시	삶의 자세	엄마	엄마가 깨달은 삶의 교훈을 아들에게 들려줌	20행

연도	작품명	제재	화자의 특징	형상화의 특징	형태
08년-1	빨래하는 날	빨래	어린이	친구와 다투 후의 불편한 마음을 씻고자 하는 소망을 한 문장으로 서술	4연 12행
08년-2	행복	가난한 가족	전형적인 서정적 자아	가난한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이들을 위하는 햇빛의 마음이 빛어내는 행복을 서술	4연 12행
09년	깊은 산속	자연(숲속)	전형적인 서정적 자아	자연 속의 존재들의 교감을 물활론적 시각에서 서술	4연 20행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8편의 시들을 제재로 한 문항들 중, 왜 2006년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고 2009년 문항이 가장 높았을까? 우선 작품 차원에서 보면 2006년과 2009년 작품 모두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다. 2006년 작품의 주제는 ‘겨울은 / 봄을 위하여’라는 반복되는 표현을 단서로 하여, 2009년 작품의 주제 역시 ‘~하고 싶어’라는 반복되는 표현을 단서로 하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주제 파악의 단서로 작용하는 반복적 표현의 명시성을 고려하면 두 작품은 유사하거나 2009년 작품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두 문항에 대한 정답률 차이는 클 뿐만 아니라 2006년 문항이 더 낮게 나타났다.

문항의 답지 반응을 살펴보면, 2006년의 오답지 ⑤에 대한 반응률이 31.8%로, 정답지에 대한 반응률(39.7%)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2009년 문항에서는 매력적인 오답지가 거의 없다. 변별도를 살펴보면 <표 III-1>에 제시된 바처럼 2006년 문항은 0.35, 2009년 문항은 0.48로 나타나 2009년 문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컨대, 초등학생들이 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활동은 제시 작품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겠으나 문항의 특성 특히 매력적인 오답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표 II-2>에 제시된 바처럼, 성취기준 32에 대해서 6회의 검사 중 4회 이상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고, 앞서 살펴 2006년 문항과 2007년 문항에 대해서만 50% 미만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2007년 역시 2006년과 마찬가지로 매력적 오

답지가 2개 정도 있었다(①-46.8%, ②- 4.2, ③-9.31, ④-24.6, ⑤-13.4). 이처럼 답지의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초등학생들은 왜 성취기준 36에 대해 즉 인상적 표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인 2004년, 2005년 문제를 분석해 본다.

성취기준 36의 2004년 문항과 답지 반응	성취기준 36의 2005년 문항과 답지 반응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겨울의 길목에서 오들오들 떨고 섰을 <u>⑦어리고 작은 새들을 위해</u>	그 눈동자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이다.
들판 구석 자리에 산기슭 풀섶에 <u>⑤풀열매들이 영근다.</u>	<u>그 목소리는</u> <u>도란도란</u> <u>속삭이며 흐르는</u> <u>시냇물이다.</u>
숲속 가시덤불의 <u>⑥산망개 몇 알도 빨갛게 맛이 듈다.</u>	그 귀는 이 세상 맑은 새소리가 열린 숲 속의 나뭇가지다.
가을이 우리들 과일 바구니에 호두알을 준비하듯 <u>⑤어린 새들의 떨리는 체온을 위해</u>	그 냄새는 그윽한 꽃향기다.
가을걷이 하는 날 비람은 욕심스런 사람들 손으로부터 닌알곡 <u>⑤몇 알쯤 떨구어 두며</u>	그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게 새롭고 그의 입으로 말하면 즐거운 음악이 되고 그의 귀로 들으면 아름다운 교향곡만 흐르고 그의 코로 냄새 맡으면 향수가 아닌 게 없다.
그들의 지게 위에서도 또 날알 몇 개를 내려 길섶에 숨긴다. —박두순, 〈새들을 위해〉	—김관식, 〈어린이〉

성취기준 36의 2004년 문항과 답지 반응					성취기준 36의 2005년 문항과 답지 반응				
13. 시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찾아 그 까닭을 가장 잘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23. 위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가장 적절하게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새가 오들오들 떨고 있다는 표현 : 새가 떨고 있는 소리를 실감나게 묘사하여서					① 그 눈동자는/아침 햇살에 반짝이는/이슬방울이다.				
② 풀열매들이 영근다는 표현 : '영근다'는 낱말에서 풀열매의 색깔이 생생하게 드러나서					② 도란도란/속삭이며 흐르는				
③ 가을이 호두알을 준비한다는 표현 : 가을을 호두에 빗대어 표현한 점이 재미있어서					③ 그 냄새는/그윽한 꽃향기다.				
④ 바람이 날알을 숨긴다는 표현 : 바람을 사람처럼 생각한 점이 재미있기 때문에					④ 그 눈으로 보면/이 세상 모든 게 새롭고				
⑤ 지게 위에서 날알 몇 개를 내린다는 표현 : 지게에서 날알을 내렸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⑤ 그의 귀로 들으면/아름다운 교향곡만 흐르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7.5	9.2	8.6	37.6	6.6	16.9	51.9	8.8	16.9	3.6

성취기준 36은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의 표현 효과를 이해한다.’인데, 문항에 서 설정한 구체적인 과제는 ‘특정한 표현이 왜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성취기준 32나 성취기준 35의 문항들에 비해, 문항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은 독서 단계 중 상위 단계인 평가와 감상 능력에 가깝다. 또한 특정한 표현이 넣는 미묘한 느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언어 감각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도 동시에 요구하는 ‘꼼꼼히 읽기’의 대표적 예라 하겠다. 성취기준 36은 성취기준 32나 35에 비해 그 자체로 복잡한 지식과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성취기준 36에 기반한 문항들의 2004년~2009년간 정답률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문항 반응을 살펴보면 성취기준 36이 요구하는 복잡한 시 읽기 능력을 초등 시교육에서 발달시키는 데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된다. 즉 특

정한 표현이나 그것의 효과에만 주목하여 교육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2004년 문항을 살펴보자. 이 문항에 대해 전체 학생들의 반응은 정답지 ④에 대한 반응과 오답지 ①에 대한 반응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오답지 ①에 쓰인 ‘오들오들’이라는 음성상징에 초등학생들이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그것을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본 이유의 타당성을 간과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진선희(2006)가 분석하여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시에는 흉내 내는 말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부터 형성되며, 차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6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강하다.¹⁷⁾ 이러한 경향성은 7차 교육과정의 시교육 내용에서 ‘시어의 유희성’ 가운데 ‘흉내 내는 말’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다는 점, 교과서에 제시된 시 작품들도 이런 제한적인 언어 유희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서 연유한다. 2004년 문항의 오답지 ①에 대한 반응률이 정답지 ④에 대한 반응률과 유사한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05년 문항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도 정답지 ②에 ‘재미있는 말(인상적인 표현)=흉내 내는 말(음성상징)’이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추론된다.

이처럼 성취기준36에서 요구하는 시 읽기 능력에 대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고 있는 까닭은 성취기준 36 자체의 복합성과 아울러 초등 시교육 내용의 편향성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시 작품 속의 인상적 표현을 발견하고 그것의 표현 효과를 설명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적 표현의 특성에 대한 시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17) 진선희(2006), 『문학체험연구』, 박이정, pp.153-159.

IV.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2004년~2009년간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초등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도구, 평가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초등 시교육 평가의 개선 방향을 논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구성된 초등 시교육 평가틀은 6년간 지속적으로 활용된 3개의 성취기준과 2007년과 2008년만 활용되었던 2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설정된 초등 시교육의 내용 요소 전체에 비해 과소한 문제점을 지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시교육 내용 체계 중 창작 활동 범주의 성취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내용 타당도 면에서 포괄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수용 활동 범주 중 시의 표현 층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 중복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 시교육 평가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작 범주의 성취기준을 추가하고 표현 층위의 중복적 성취기준들을 통합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평가틀이므로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제한적인 정보이지만 2004년~2009년간 평가에서 드러난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 중 시 읽기 능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시의 주제를 파악하거나 심상의 종류를 구별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취 수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시 작품 속의 다양한 표현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반드시 학생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그것은 시적 표현에 대한 초등 시교육이 특정한 내용 특히 시어의 유희성 중 음성상징에 의한 유희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시적 표현에 대한 초등 시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4년~2009년간 활용된 초등 시교육 평가 도구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런데 심상의 종류를 묻는 몇몇 평가 도구들에서는 문제점을 보

였다. 특히 ‘감각적 표현’이라는 용어 사용이 평가 도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염밀하지 않아, 학생들이 평가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오인하게 하는 결함이 내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과 공통의 의미로 활용해야 할 시 학습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에서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시교육이 실천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시교육의 전체적 차원에서 초등 시교육은 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표현 능력, 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좀 더 엄밀하게 파악하여 중등교육이 실천될 때, 국어과 교육에서 시교육이 온전하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교육 평가틀이 기준보다는 더욱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본 논문은 2011. 6. 30. 투고되었으며, 2011. 7. 1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명숙 외(200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RE 2001-2.
- 김성숙 외(2010),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분석 결과—초등학교 6학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10-7-2.
- 김준오(1994), 『시론』, 삼지원.
- 남민우 외(2007), “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07-3-2.
- 남민우 외(2008), “200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08-5-1.
- 남민우 외(2009),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09-9-1.
- 남민우 외(2010),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10-6-2.
- 박정 외(200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기술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O 2006-4.
- 성태제(2005), 『현대교육평가』, 학지사, pp.319-321.
- 신현재·권혁준·곽춘옥(2007), 『아동문학과 교육』, 박이정, p.119.
- 신현재·진선희(2006), 『학습자 중심 시교육론』, 박이정.
- 유영희(2003),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 윤여탁 외(2010),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 이재기 외(2005), “200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05-1-2.
- 이재기 외(2006), “200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06-1-1.
- 진선희(2006), 『문학체험연구』, 박이정.
- 황정규 외(1991),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Bachman, L.F. & Palmer, A.S.(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U.P.

<초록>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과 시교육 평가의 개선 방안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남민우

본고는 국가수준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초등 시교육 평가틀과 평가 도구, 평가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초등 시교육 평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4년~2009간의 초등 시교육 평가틀은 시교육 내용 체계 중 창작 활동 범주를 설정하지 않았었고, 시의 표현과 관련된 수용 활동의 평가 요소가 중복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창작 범주의 성취기준을 추가하고 표현 층위의 중복적 성취 기준들을 통합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2004년~2009년간 평가에서 드러난 초등학생들의 시 읽기 능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시의 주제를 파악하거나 심상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시 작품 속의 다양한 표현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학생들의 능력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시적 표현에 대한 초등 시교육이 특정한 내용 특히 시어의 유희성 중 음성상징에 의한 유희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시적 표현에 대한 초등 시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04년~2009년간 활용된 초등 시교육 평가 도구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런데 심상의 종류를 묻는 몇몇 평가 도구들에서는 문제점을 보였다. 특히 ‘감각적 표현’이라는 용어 사용이 평가 도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염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 학습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에서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시교육이 실천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초등학생들의 시적 능력, 시교육, 시교육 평가틀, 평가 도구, 성취기준

<Abstract>

**A Study on Poetic Competence and Improvement of
Poetic Education Assessment in Elementary School**

Nam, Min-w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ult and assessment framework of elementary poetic education in 2004-2009 NAEA(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to suggest the way of improving elementary poetic education. The assessment framework of elementary education has two critical problems. First, it has not validity without covering the overall content of elementary poetic education, especially not including the productive competence domain in poetic education. Second, it has redundancy with overlapping standards for understanding expression of poem. Therefore, it needs to be reconstructed with covering the productive competence domain in poetic education and cut off the redundancy in standards.

To the result of assessment, elementary students be good at interpreting the theme of poem and classifying the kinds of imagery. But they be not good at comprehending the effect of figurative language in poem and giving the supportive evidence of effect. We can make a inference this result is from the unsystematic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of elementary poetic education. So, we try to refine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of elementary poetic education.

To the result of reviewing the items, we found most items be proper for assessing the elementary student' ability. But there are some flaws in some items. Especially the terminology and definition of 'sensuous description' and 'image' is a little confused. To define a term and use it,

the efficacy of elementary poetic education can be upward.

【Key words】 poetic competence of elementary student, poetic education, assessment framework of poetic education, items for poetic evaluation, standards for poetic education

【부록】

2004년~2009년간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초등 시교육 평가 문항

* 편집 상태는 원본과 다름.

연도	지문	문항
04	<p>[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hr/> <p>겨울의 길목에서 오들오들 떨고 셨을 <u>⑦어리고 작은 새들을 위해</u></p> <p>들판 구석 자리에 산기슭 풀섶에 <u>⑮풀열매들이 영근다.</u></p> <p>숲속 가시덤불의 <u>⑯산망개 몇 알도 뺄갛게 맛이 든다.</u></p> <p>가을이 우리들 과일 바구니에 호두알을 준비하듯 <u>⑭어린 새들의 떨리는 채온을 위해</u></p> <p>가을걷이 하는 날</p> <p>바람은 욕심스런 사람들 손으로부터 낱알곡 <u>㉕몇 알쯤 떨구어 두며</u></p> <p>그들의 지게 위에서도 또 낱알 몇 개를 내려 길섶에 숨긴다. —박두순, 〈새들을 위해〉</p> <hr/>	<p>11.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① 알록달록 바뀐 가을 들판의 모습이 아름답다.</p> <p>② 힘없고 작은 것을 보살펴 주려는 자연의 마음이 따뜻하다.</p> <p>③ 겨울을 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p> <p>④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자연이 무척 고맙다.</p> <p>⑤ 가을걷이를 하며 보람을 느끼는 농부의 부지런함을 배워야겠다.</p> <p>12. ⑦~⑩ 중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어느 것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눈으로 보는 것을 맛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해서 실감이 난다.</p> </div> <p>①⑦ ②⑮ ③⑯ ④㉕ ⑤㉕</p> <p>13. 시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찾아 그 깊음을 가장 잘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① 새가 오들오들 떨고 있다는 표현 : 새가 떨고 있는 소리를 실감나게 묘사하여서</p> <p>② 풀열매들이 영근다는 표현 : '영근다'는 낱말에서 풀열매의 색깔이 생생하게 드러나서</p> <p>③ 가을이 호두알을 준비한다는 표현 : 가을을 호두에 빗대어 표현한 점이 재미있어서</p>

		<p>④ 바람이 날알을 숨긴다는 표현 : 바람을 사람처럼 생각한 점이 재미있기 때문에</p> <p>⑤ 지게 위에서 날알 몇 개를 내린다는 표현 : 지게에서 날알을 내렸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p>												
05	<p>[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p>그 눈동자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이다.</p> <p><u>그 목소리는</u> <u>도란도란</u> <u>속삭이며 흐르는</u> 시냇물이다.</p> <p>그 귀는 이 세상 맑은 새소리가 열린 숲 속의 나뭇가지다.</p> <p>그 냄새는 그윽한 꽃향기다.</p> <p>그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게 새롭고 그의 입으로 말하면 즐거운 음악이 되고 그의 귀로 들으면 아름다운 교향곡만 흐르고 그의 코로 냄새 맡으면 향수가 아닌 게 없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관식, 〈어린이〉</p>	<p>22. 밑줄 친 부분에서 쓰인 감각적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은 무엇입니까?</p> <p>① 고추같이 빼알간 노을 ② 보송보송한 야기의 두 볼 ③ 가슴에 스미는 들국화 향기 ④ 바람결에 묻어오는 까치 소리 ⑤ 마알간 유리에 비치는 푸른 하늘</p> <p>23. 인상적인 표현을 찾아 그 까닭을 가장 바르게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표 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까 닦</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① 그 눈동자는/아침 햇살에 반짝이는/이슬방울이다.</td> <td style="padding: 5px;">이슬 방울을 아침 햇살에 비유하였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② 도란도란/속삭이며 흐르는</td> <td style="padding: 5px;">흉내내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③ 그 냄새는/그윽한 꽃향기다.</td> <td style="padding: 5px;">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유하였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④ 그 눈으로 보면/이 세상 모든 게 새롭고</td> <td style="padding: 5px;">이름다운 세상을 자세하게 표현하였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⑤ 그의 귀로 들으면/아름다운 교향곡만 흐르고</td> <td style="padding: 5px;">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이다.</td> </tr> </tbody> </table> <p>24.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① 동물을 사랑하는 어린이 ② 눈동자가 반짝이는 어린이 ③ 모든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어린이 ④ 즐거운 음악을 만들고 싶은 어린이 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p>	표 현	까 닦	① 그 눈동자는/아침 햇살에 반짝이는/이슬방울이다.	이슬 방울을 아침 햇살에 비유하였다.	② 도란도란/속삭이며 흐르는	흉내내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③ 그 냄새는/그윽한 꽃향기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유하였다.	④ 그 눈으로 보면/이 세상 모든 게 새롭고	이름다운 세상을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⑤ 그의 귀로 들으면/아름다운 교향곡만 흐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이다.
표 현	까 닦													
① 그 눈동자는/아침 햇살에 반짝이는/이슬방울이다.	이슬 방울을 아침 햇살에 비유하였다.													
② 도란도란/속삭이며 흐르는	흉내내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③ 그 냄새는/그윽한 꽃향기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유하였다.													
④ 그 눈으로 보면/이 세상 모든 게 새롭고	이름다운 세상을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⑤ 그의 귀로 들으면/아름다운 교향곡만 흐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이다.													
06	<p>[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p>겨울은 봄을 위하여</p>	<p>22. 다음 표현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①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들판 ② 갈래갈래 흩어지는 풀꽃 향기</p>												

<p>산을 잠시 흰 눈으로 덮는다. 겨울은 봄을 위하여 들판을 잠시 비워 둔다.</p> <p>하얀 산 어디선가 <u>나무들은 푸른 물감을 만들고</u></p> <p>빈 들판 어디선가 나비들은 고운 옷감을 만들고</p> <p>아름다운 그림을 위하여 하얀 도화지를 마련하듯</p> <p>겨울은 봄을 위하여 산을 잠시 흰 눈으로 덮는다.</p> <p>겨울은 봄을 위하여 들판을 잠시 비워 둔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숙희, 〈겨울은〉</p>	<p>③ 바람이 사공 되어 노를 짓는다. ④ 귀뚤귀뚤 노래하는 숲 속의 음악가 ⑤ 해님은 소리 내어 아는 체를 합니다.</p> <p>23. 인상적인 표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적절하게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558 396 926 817"> <thead> <tr> <th></th><th>인상적인 표현</th><th>그렇게 생각한 까닭</th></tr> </thead> <tbody> <tr> <td>①</td><td>겨울은/봄을 위하여</td><td>손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td></tr> <tr> <td>②</td><td>하얀 산/어디선가</td><td>중심 글감이 잘 드러나 있다.</td></tr> <tr> <td>③</td><td>나비들은 고운 옷감을 만들고</td><td>나비를 고운 옷감에 비유하였다.</td></tr> <tr> <td>④</td><td>하얀 도화지를 마련하듯</td><td>눈에 덮인 산을 도화지에 비유하였다.</td></tr> <tr> <td>⑤</td><td>들판을 잠시 비워 둔다</td><td>봄을 맞은 들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td></tr> </tbody> </table> <p>24.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① 봄을 기다리는 즐거움 ② 하얀 도화지에 그리는 겨울 풍경 ③ 겨울 들판을 보고 느끼는 허전함 ④ 봄을 배려하는 겨울의 아름다운 마음 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들판의 아름다운 모습</p>		인상적인 표현	그렇게 생각한 까닭	①	겨울은/봄을 위하여	손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②	하얀 산/어디선가	중심 글감이 잘 드러나 있다.	③	나비들은 고운 옷감을 만들고	나비를 고운 옷감에 비유하였다.	④	하얀 도화지를 마련하듯	눈에 덮인 산을 도화지에 비유하였다.	⑤	들판을 잠시 비워 둔다	봄을 맞은 들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인상적인 표현	그렇게 생각한 까닭																	
①	겨울은/봄을 위하여	손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②	하얀 산/어디선가	중심 글감이 잘 드러나 있다.																	
③	나비들은 고운 옷감을 만들고	나비를 고운 옷감에 비유하였다.																	
④	하얀 도화지를 마련하듯	눈에 덮인 산을 도화지에 비유하였다.																	
⑤	들판을 잠시 비워 둔다	봄을 맞은 들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p>[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hr/> <p>—최그만 우리 마을이 빠지지 않았을까. 가슴 두근거리며 우리 고장 지도를 들여다본다.</p> <p>07 —야, 있다! 그럼 그렇지! 손뼉을 친다.</p> <p>우리 고장의 동쪽 가에 자리잡은 우리 마을, 그 한가운데쯤</p>	<p>22. 감각적 표현이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① 물 위에 동동 은행잎 한 잎 떠워 보내자 ② 포도알에 닿는 빛방울 소리 톡톡 톡톡 파랗게 짙어가네 ③ 싱긋 웃는 아저씨 얼굴보다 고소한 내음이 먼저 반긴다 ④ 빨간 고추 속에는 노오란 고추씨가 돌이와 있네 ⑤ 흙 속엔 가지가지 맛이 있나 봐 그러길래 과일도 가지가지 맷하니 보지</p>																		

빤히 등대가 바라뵈는
바닷가 우리 집을
눈어림으로 점찍어 본다.

파도 소리에 흔들리는 우리 집
별살 푸짐한 뜰의 우리 집

— 살찐이는 지금쯤
툇마루에서 해바라기하고 있을까.

우리 고장, 우리 마을, 우리 집의
우리 고양이 숨결 소리가
지도 속에서 가릉가릉 범져 나온다.

— 박경용, 〈지도 속에서〉

[30. 수행평가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아,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

23.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지도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함
- ②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물을 그리워함
- ③ 자기가 살고 싶은 고장의 모습을 상상함
- ④ 고장이 들어 있는 지도를 보고 신기해 함
- ⑤ 바닷가 마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함

24. 인상적인 표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적절하게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인상적인 표현	그렇게 생각한 까닭
①	쬐그만 우리 마을이 빠지지 않았을까.	작은 마을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②	야, 있다! 그럼 그렇지! 손뼉을 친다.	기뻐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③	파도 소리에 흔들리는 우리 집	파도가 칠끼ификаци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④	별살 푸짐한 뜰의 우리 집	아이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을 상상하였다.
⑤	툇마루에서 해바라기하고 있을까.	해바라기 꽃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른다.

30.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다?

- ① 고생은 젊어서 해야 한다.
- ②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 ③ 수정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 ④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
- 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평가 10] 자신이 (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될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 (3점)

는 걸.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가)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도 났었지.
바다에는 양탄자도 깔려 있지 않
았다.
맨바닥이었어.

그러나 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다.
충계침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돌고
때로는 전깃불도 없는 캄캄한 곳까지 올라
갔지.
그러니 아들아, 너도 돌아서지 마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마라.
왜냐하면 넌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니까.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 —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난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
니었어.

* 수정 : 보석의 한 종류

—랭스톤 휴즈,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시〉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빨랫줄마다
하얗게 삶은
흰 구름 한 조각도 널어놓고

08

마일간 물 속에서
갓 행궈낸
푸른 하늘 한 자락도 걸쳐놓고
친구와 다툼으로

20. (가)와 가장 비슷한 감각적 표현은 어
느 것입니까?

- ① 머리꼭지에 빨간 댕기를 드리운
뽀얗고 하얀 물새알
- ② 간간하고 짭조롬한
미역 냄새 바람 냄새
- ③ 뾰족뾰족 날카로운 못된 심술도
삭둑삭둑 가위질 하여
- ④ 사각사각 흰 눈을 밟고
깡총깡총 뛰노는 바둑이
- ⑤ 일락일락 얼룩진 산세알은
달콤하고 향긋한 풀 꽃 냄새

(가) 구겨지고 헝클어진 내 속마음도
 탁탁 털어 넣어

눈부신 햇볕 아래
 바짝바짝
 말리고 싶다.

—강현호, 〈빨래하는 날〉

21.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웃이 헝클어져서 잘 정리하려고 함
- ②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
- ③ 빨래를 잘 해서 햇볕에 말리고 싶은 마음
- ④ 푸른 하늘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함
- ⑤ 친구와 다투고 나서의 속상함을 풀고 싶은 마음

22. 위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가장 적절하게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인상적인 표현	그렇게 생각한 까닭
①	하얗게 삫은 흰 구름	빨래를 삫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②	흰 구름 한 조각도 널어놓고	구름을 빨래처럼 널어놓았다고 비유하여 표현한 점이 재미있다.
③	마알간 물 속에서	물 속에 빨래가 많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었다.
④	푸른 하늘 한 자락도 걸쳐 놓고	파란 옷을 입고 빨래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⑤	바짝바짝 말리고 싶다	빨래를 빨리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30. 가족에 대한 '햇빛'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외로워한다.
- ② 아쉬워한다.
- ③ 쓸쓸해한다.
- ④ 괴로워한다.
- ⑤ 안타까워한다.

[30. 수행평가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행평가 10] (가)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을 '위로하는 쪽지'를 두 문장 이상 쓰시

<p>(가) 방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아들 공부방으로 줄 텐데 아빠 엄마는 그게 아쉬웠다.</p> <p>강아지 똥이라도 놀 자그만 뜰이 있었으면 흙에다 꽃 몇 송이 가꿀 텐데 아이들은 그게 아쉬웠다.</p> <p>작은 집 좁은 방에서 오순도순 사는 게 안타까워</p> <p>햇빛은 일찍 찾아와 하루 종일 머물다 간다.</p> <p>—엄기원, 〈행복〉</p>	<p>오. [3점]</p> <p>♡ 사랑하는 부모님께</p> <p>—부모님의 영원한 응원군 올림</p>
<p>09</p> <p>[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p>깊은 산속 나무들은 아름다운 산새 소리 오래오래 쌓아 두고 싶어 날마다 잎을 키운다.</p> <p>깊은 산속 나무들은 밤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가 들고 싶어 자꾸만 하늘로 뻗어간다.</p> <p>(가) 조잘대는 산새 소리 발끝까지 간지러운 산골물 소리</p> <p>그 소리가 듣고 싶어 산토끼, 다람쥐도 쫑긋쫑긋 귀기울이고 찾아오면</p>	<p>12. (가)와 가장 비슷한 감각적 표현은 어느 것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나무에 열린 감이 빼알갛게 익었는데 ② 푸른 하늘 위에 하얗게 반짝이며 산 넘어 날아가는 비행기 ③ 동그란 쳐마 밑으로 뻘겋고 예쁜 발이 따끈따끈 ④ 톡톡 두드리는 소리 손바닥을 때끔대는 병아리 나오는 소리 ⑤ 깨알 같은 글씨 바다를 읽으면 골골이 담겨진 바다의 비린내 <p>13. 위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겹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 ② 밤마다 속삭이는 별들의 이야기 ③ 산을 넘어가는 새벽달의 힘겨움 ④ 산속 나무들이 잎을 키우는 모습 ⑤ 아침마다 찾아오는 산토끼의 노래

지나던 달님도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야
허겁지겁 산을 넘는다.
—강영희, 〈깊은 산속〉

14. 위 시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찾고, 그렇
게 생각한 까닭을 가장 적절히 말한 것
은 어느 것입니까?

인상적인 표현	그렇게 생각한 까닭
산새 소리 / 오 래오래 쌩아 두 고 싶어	시끄러운 산새 소리가 듣기 싫어 쌩아 둔다고 말한 것이 재미있다.
밤마다 속삭이 는 / 별들의 이야기	별이 빛나는 모습을 이 야기한다고 표현한 점이 재미있다.
자꾸만 하늘로 뻗어간다.	하늘로 돌아가고 싶은 나무의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쫑긋쫑긋 귀기 울이고 / 찾아 오면	산토끼와 다람쥐가 물을 먹으려고 다투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
새벽에야 / 허 겁지겁 산을 넘 는다.	다람쥐가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산을 넘는 모 습을 재미있게 표현했다.